

윤석민 16일 양키스 상대 ML데뷔전

비자발급 위해 캐나다 갔다 폭설로 밭 ‘동동’

뒤늦게 엔트리 합류…눈도장 받을 기회 얻어

메이저리그 데뷔전을 앞둔 투수 윤석민(불티모어)이 웃다가 울었다.

12일 오전(이하 현지시간) 윤석민은 “오후 비행기로 미국으로 돌아간다. 14·15일 정도에 등판을 한다며”며 들떠있었다.

미국 플로리다 사라소타 캠프에서 훈련을 해왔던 윤석민은 최근 취업비자를 위해 캐나다 오타와로 이동했다. 비자가 발급되면서 윤석민은 오후 비행기로 캠프에 복귀할 예정이었다.

메이저리그 공식 데뷔 날짜도 나왔다. 벅 쇼울터 불티모어 감독이 “윤석민이 캠프로 돌아와 16일 데뷔전을 치른다”고 밝히면서 뉴욕 양키스가 첫 상대로 낚침됐다.

하지만 몇 시간 지나지 않은 이날 저녁 윤석민은 “인생에 마가 낀 것 같다”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부분 가슴으로 공항으로 향했지만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폭설이 내리면서 비행기가 뜨지 못한 것이다.

우여곡절 많았던 빅리그 도전기에 또 다른 헤프닝이 생겼다.

KIA 소속이었던 2011시즌 포스팅 자격을 얻은 윤석민은 팀 사정상 2013시즌이 끝나고서야 미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다. 2년의 기다림 끝에 맞은 기회였지만 최종 사인까지 과정은 험난했다.

앞선 2년 끄적였던 성적을 내지 못했고 적지 않아 최대이었던 일본인 투수 다니카의 거취가 확정되지 못하면서 윤석민의 계약은 지지부진했다.

캠프 시작을 하루 앞둔 2월13일에 서야 불티모어에게 결정됐지만 이번에는 비자가 문제였다. 비자 발급이 늦어지면서 빅리그 도전에도 브레이크

시범경기 세차례 등판

“긴장과 기대가 교차한다.

경기서 실력 보여주겠다”

크가 걸렸다. 선발 경쟁자들이 시범 경기를 통해 실력을 발휘를 하고 있는 터라 더욱 마음이 급했던 윤석민이었다.

마침내 비자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기쁨도 잠시. 이번에는 눈이 윤석민의 앞길을 막았다. KIA 시절에도 ‘불운의 에이스’로 불릴 정도로 사연 많았던 윤석민은 쏟아지는 눈을 보면서 허탈하게 웃었다.

2007시즌 유난히 득점 지원을 받지 못하며 최다패(18)의 주인공이 됐던 윤석민은 2008 베이징 올림픽 때는 대표팀 최종 엔트리에서 탈락했다가 겨우 태극마크를 달았다. 2010 광저우 우아시안게임에서는 엔트리 누락으로 단 하나의 공도 던지지 못하고 강판되기도 했다.

복귀가 늦어졌지만 윤석민은 양키스전을 포함해 세 차례 정도 시범경기에 등판할 예정이다. 올 시즌에는 마이너리그 강등 거부권이 없는 만큼 시범경기 결과에 따라서 트리플A에서 시즌을 시작할 수도 있다. 공 하나하나가 중요한 경기가 될 전망이다.

윤석민은 “비행기가 뜨는다고 해서 올 뻔했다”고 웃으며 “다른 선수들이 마이너리거로 많이 이동을 하면서 긴장도 되지만 앞으로의 경기가 기대된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지난 2월 미국 프로야구 불티모어 오리올스와 계약한 윤석민이 입단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윤석민은 16일(한국시간) 뉴욕 양키스를 상대로 메이저리그 데뷔전을 치른다.

배구 유망주들 강진서 ‘V스파이크’

춘계 전국 중·고 연맹전

오늘부터 7일간 열전

춘계 전국 중·고 배구연맹전이 14일부터 강진에서 펼쳐진다.

전남도배구협회는 2014 춘계 전국 남녀 중·고 배구연맹전이 14일 오전 10시 포항여고와 남성여고 개막전을

시작으로 20일까지 7일간 강진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여중 13개팀, 남중 11개팀, 여고 7개팀, 남고 13개팀 등 총 44개팀이 출전해 76경기를 치른다. 결승전은 20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광주·전남에서는 지난해 우승팀인 광주체육중을 비롯해 목포 영화중, 순천 팔마중, 광주전자공고, 벌교상

고, 순천체고 등 6개팀이 참가한다. 오승재 전남도배구협회장은 “춘계 중고 배구연맹전은 한국 배구의 동량을 발굴·육성하는 의미있는 대회”라며 “선수·임원 등 2000여명이 남도답사 1번지인 강진을 찾아 지역경에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스포츠 꿈나무들 한자리 모여 “파이팅”

2014년도 광주청소년스포츠클럽 출범식이 13일 오후 5시 광주시 서구 암주종합체육관 국민생활관 1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120명의 회원이 연말까지 매주 월·수·금 오후 4시부터 월드컵경기장·암주수영장 등에서 종목별 훈련을 통해 기초체력을 기르고, 국가대표 선수촌 견학 등 흥미유발 프로그램에도 참여한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피겨여왕’ 김연아도 최고훈장 못 받는다

체육 서훈규정 대폭 강화

‘피겨여왕’ 김연아(24)도 최고 훈장을 받지 못하게 됐다. 정부가 올해부터 체육분야 서훈 규정을 크게 강화하면서다.

이에리사 의원은 13일 서울 시내

모 읍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올해부터 체육훈장 수여 기준을 크게 강화해 이제는 앙궁이나 쇼트트랙을 제외하면 어떤 종목에서

도 1등급 훈장을 사실상 받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국제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

린 체육인에게 수여하는 체육훈장은

청룡장(1등급), 맹호장(2등급), 거상장(3등급), 백마장(4등급), 기린장(5등급) 포장으로 나뉜다.

각 훈장은 훈격결정 점수에 따라 나뉘는데 정부는 올해부터 청룡장(1000점→1500점), 맹호장(500점→700점), 거상장(300점→400점), 백마장(200점→300점), 기린장(150점→250점), 포장(50점→150점) 등 각 부문 점수를 대폭 올렸다.

개정안에 따라 1등급인 청룡장을 받기 위해서는 올림픽에서 금메달(600점) 2개와 은메달(360점) 1개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 개정안은 양궁과 쇼트

트랙, 사격 등 다수의 메달이 걸린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에서는 불가능한 기준이라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2010년 벤쿠버올림픽에서 금메달, 2014년 소치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김연아는 8번의 세계선수권대회(주니어 포함)에서 획득한 금 3, 은 2, 동 2개를 합해 훈격 점수 1424점에 그쳐 청룡장을 받을 수 없다.

김연아는 지난해 규정에 따르면 넉넉하게 청룡장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 규정이 적용되면서 맹호장에 만족해야 한다.

/연합뉴스



3월 15일(토)

▲광주금당산악회 3월 15일(토) 충북 영동

백화산, 주행봉, 전월봉, 한계봉마트봉 06:

20, 암주체육관주차장 06: 30, 한국병원앞

06: 40, 문예회관주차장 06: 50, 비엔날

레주차장 07: 00: 00※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010 6294 2678

▲광주도립묘지 3월 15일(토) 고흥 팔영

산, 암주체육관 07: 30~31, 비엔날레주

차장(경유)※ 다음카페 광주도립묘지 010 3608 4267, 010 3641 6153

▲광주진주봉도온산학회 3월 15(토) 한려수

도 해상국립공원 대 매물로 바다낚기 해놓길

트레킹, 07: 00~07: 30, 진월봉 신진마트, 암주동

아리포초지 베내리자장 07: 10, 삼공원이소

맞은편 07: 20, 고원봉회 회관앞 07: 25, 문

예회관 후문 07: 30~31, 비엔날레주차장 07:

35, 각화동 그린풀예식장 맞은편 07: 00~00

* 다음카페 광주진주봉도온산학회

011 3627 2113

3월 16(일)

▲빛고을무기신학회 3월 16(일) 일상 옥정

호길, 07: 00~07: 30, 암주체육관, 07: 20 홍동

증집, 07: 30~07: 45, 문예회관 07: 35, 광주역

07: 40, 문예회관 07: 45, 문예회관 07: 50

07: 55, 동광주호수공원 07: 55~56, 광주

07: 58, 광주호수공원 07: 58~59, 광주

07: 59~60, 광주호수공원 07: 60~61, 광주

07: 61~62, 광주호수공원 07: 62~63, 광주

07: 63~64, 광주호수공원 07: 64~65, 광주

07: 65~66, 광주호수공원 07: 66~67, 광주

07: 67~68, 광주호수공원 07: 68~69, 광주

07: 69~70, 광주호수공원 07: 70~71, 광주

07: 71~72, 광주호수공원 07: 72~73, 광주

07: 73~74, 광주호수공원 07: 74~75, 광주

07: 75~76, 광주호수공원 07: 76~77, 광주

07: 77~78, 광주호수공원 07: 78~79, 광주

07: 79~80, 광주호수공원 07: 80~81, 광주

07: 81~82, 광주호수공원 07: 82~83, 광주

07: 83~84, 광주호수공원 07: 84~85, 광주

07: 85~86, 광주호수공원 07: 86~87, 광주

07: 88~89, 광주호수공원 07: 89~90, 광주

07: 90~91, 광주호수공원 07: 91~92, 광주

07: 92~93, 광주호수공원 07: 93~94, 광주

07: 94~95, 광주호수공원 07: 95~96, 광주

07: 96~97, 광주호수공원 07: 97~98, 광주

07: 98~99, 광주호수공원 07: 99~100, 광주

07: 100~101, 광주호수공원 07: 101~102, 광주

07: 102~103, 광주호수공원 07: 103~104, 광주

07: 104~105, 광주호수공원 07: 105~106, 광주

07: 106~107, 광주호수공원 07: 107~108, 광주

07: 108~109, 광주호수공원 07: 109~110, 광주

07: 110~111, 광주호수공원 07: 111~112, 광주

07: 112~113, 광주호수공원 07: 113~114, 광주

07: 114~115, 광주호수공원 07: 115~116, 광주

07: 116~117, 광주호수공원 07: 117~118, 광주

07: 118